

# 키부츠의 교육의 원칙

(The Principles of Kibbutz Education)

아론 야드린(Aharon Yadlin)

김태건 역(번역가)

집단 교육의 원칙은 무엇인가? 키부츠의 교육에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또 무엇인가? 첫 번째 원칙은 교육적이며 동시에 사회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키부츠에 소속된 모든 어린이들의 양육과 교육은 가족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동체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인식이다.

키부츠 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평등주의와 집단주의라는 독특한 이념을 후대에 전해주는 일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책임은 이 외에도 두 가지 측면을 더 지니고 있다. 그 첫 번째 측면은 어린이 각자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즉 키부츠의 새로운 세대에 속한 어린이들은 각자 자신들의 독특한 능력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회라는 말은 어린이 각자에게 이들의 능력과 필요에 따른 진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키부츠는 자체에 소속된 어린이들에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포함해 12년 간의 교육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키부츠의 재정 지원을 통

해 중등교육 이후의 과정으로써 최소한 3년 간의 대학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부여하고 있다.

공동체의 책임의 두 번째 측면은 키부츠의 지출 총액 가운데 교육 분야의 지출에 높은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키부츠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추세는 과거 키부츠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시절부터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키부츠 주민과 이스라엘 도시지역 주민의 생활수준을 비교 조사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키부츠의 지출 항목 가운데 교육비의 지출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키부츠의 가족은 평균적인 도시거주 가족의 지출 총액의 두 배에 달하는 비용을 초등교육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키부츠 교육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일상의 교육적 책임이 교육자들(교사들과 메타플롯(metaplot))의 손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교육자들 자신은 다름 아닌 바로 집단 공동체 출신들이란 점이다. 교육자(교사나 ‘메타펠렛’ <metapelet>)는 어린이의 학업이나 의무적인 일 외에도 이들의 사회적 활동이나 공동체 적응 활동 등 어린이의 일체의 활동에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는 어린이가 키부츠의 일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키부츠 사람들은 키부츠에서 태어난 모든 어린이들을 ‘우리 애들’ 이라고 부른다.

어린이의 사회적 적응을 돕는 전통적인 부모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어린이의 경우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일이 없다 보니 정서적인 면에서도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 어린이의 사회화 과정은 또래집단의 구성원들과 유아 및 유년 시절 동안 이들을 돌보아 주는 여러 메타플롯들에게 분산되어 있다.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의 생활에서 또래집단 구성원들의 역할은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징계하는 역할을 부분적으로 포기하긴 했어도 이들의 행동을 격려해 주는 보상자로서의 역할만은 상당 부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키부츠가 집단취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린이

들은 자신들의 부모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부모는 어린이의 삶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메타플롯의 기능은 이중적이다. 우선은 공동체 대리인의 자격으로 키부츠의 가치관에 따라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각적인 양육 활동을 통해 부모에 대한 극단적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키부츠 시스템은 부모와 교육자와 또래집단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적 아동 양육 프로그램이다. 어린이 사회는 키부츠의 교육 시스템의 근간을 이룬다. 어린이 사회는 사회교육의 주요 채널이며 크부차(kvutza, 또래집단)는 사회생활의 중요한 활동 무대이다. 그러나 다양한 나이의 이들 어린이들도 키부츠 내에서 어린이 사회와 청소년 사회를 창출하게 된다. 키부츠에서 생겨난 이 모든 청소년 사회는 키부츠 어린이들의 전국 조직에 소속된다. 이들 청소년들에 의한 키부츠 운동은 소위 일하며 공부하는 청년이라 불리는 ‘전국 근로청년운동’의 일환을 이루고 있다.

어린이를 보다 광범위한 키부츠 시스템으로 통합시키는 일, 이것이 바로 집단 교육이 지향하는 또 다른 원칙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어린이는 일을 하기 위해 배운다는 사실이다. 우선은 어린이 농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12살부터는 키부츠 경제 활동의 일원으로 일을 하게 된다. 키부츠에서는 육체노동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

‘어린이의 집’은 키부츠의 어린이 양육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독창적 작품이다. 우리는 연령별로 다양한 형태의 집을 가지고 있다. 유년기 아동을 위한 집, 걸음마 단계의 유아를 위한 집, 유치원(2살 반에서 6살까지), 종합 시설을 갖춘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집(교실과 식당과 침실 등을 포함), 청소년을 위한 집 및 모사드(mosad, 기숙사를 제공하는 지역별 중등학교로 여러 키부츠가 공동으로 이용) 등이 바로 그것이다. 모사드(이는 ‘하키부츠 하아르치’<Hakibbutz Haartzi>에만 있다)는 물론이고 이러한 ‘어린이의 집’ 역시 강력한 교육적 영향력을 지닌 종합 교육기관이다.

키부츠의 교육 시스템에선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학생들 내부에 형성되는 인간관계의 ‘차원’ (dimension) 또한 중요한 교육적 요소가 되고 있다. 학생과 교사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이런 작업 환경이다 보니 의사결정 과정엔 보다 민주적인 절차가 따르게 되고 학급의 규모가 작다 보니 교사들에게 학생들 각자를 개인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여건이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된다.

요즘은 새로운 진보적 교육 방법이 채택되면서 이 역시 키부츠 학교의 교육적 풍토 조성에 일익을 담당해 나가고 있다. 교과 과정의 일부는 과학 지식의 습득을 위한 분과별 과목이 아닌 주제 학습 시스템을 기반으로 짜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키부츠와 키부츠의 환경” 이란 주제에 대해 배운다면 학생들은 국사와 지역별 지리학을 배우는 동시에 사회학과 자연과학도 함께 공부하게 된다. 여기서 교사는 학생들의 논술 능력과 언어 및 문법 구사 등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을 지도하게 된다.

키부츠의 교과 과정은 현재 가일층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자연과학이나 여타 인문학 분야를 포함하는 등 그 내용이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 체육 및 예술 관련의 많은 활동들도 학생들에게 요구되면서 교과 과정에 통합되고 있다. 나아가 학생들은 이러한 교과목 외에도 각자가 할당받은 일이나 학생, 정부 및 사회생활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누며 학습 경험을 넓혀 나가고 있다.

또 다른 진보적 교육 방법으로 학생 개개인에 대한 개별 지도 시스템을 들 수가 있다. 이는 학습 평가에서도 상당 부분 공식적인 기준이 아닌 학생들 각자의 학습 성과와 잠재력에 따른 상대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최근 수년간이는 중등교육 체계를 바꾸어 이를 정규화해야 한다는 압력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현재 모든 키부츠 공동체는 키부츠의 사회적, 교육적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산업화와 ‘역할의 상

관성'(role-relationships)이란 드센 외부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키부츠 별로 중등학교를 세워 온 이전의 발상 대신(이는 '하키부츠 하뮤차드'(Hakibbutz Hameuchad)의 특징적 모습이었다.) 이제는 보다 효율적이고 규모가 큰 지역별 중등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현재 중등학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키부츠의 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보다 규모가 큰 지역별 중등학교가 있어야 어린이들은 이곳에서 경제 개발에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도 있게 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

키부츠도 역사의 흐름 속에 창시자의 창립 정신과 시대적 격차를 노정하게 되면서 보다 보수적이고 제도화된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집단적 생활 방식에서 가족적 유대 관계의 강화로 초점이 옮겨가는 키부츠의 사회적 변화는 키부츠 어린이들의 취침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오늘날 키부츠 공동체의 어린이의 집에서 시행되는 집단 취침 제도를 집단 교육이 고수해야 할 불가침의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게 되었다. 요즘은 또 다른 방식의 적법한 취침 제도가 마련되어 어린이 각자가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잔다. 이러한 가족단위의 취침 방식은 점점 더 강력한 대안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다.

키부츠 운동은 이미 4세대를 이어오며 영구적 생활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 혁명적 운동이 그간 치러야 했던 진정한 시련은 바로 이러한 문제로 귀결이 된다. 그러한 시련은 다름 아닌 이 운동이 과연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영속성을 지녔는가를 검증 받는 시련이었던 것이다. 키부츠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어린이가 앞으로 이처럼 독특한 키부츠의 사회적 생활 방식에 헌신하게 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이런 점은 무엇보다도 키부츠의 여타 교육 시스템이 맡아 처리해야 할 기능일 것이다.

요약해서 키부츠 교육의 주요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 ① 키부츠의 모든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
- ② 어린이 각자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와 다양한 능력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부여
- ③ 키부츠의 지출 총액 가운데 교육비 지출에 대한 우선권
- ④ 집단 공동체 출신으로서의 교육자의 역할
- ⑤ 집단 어린이 양육 프로그램(부모와 교육자와 또래집단의 공동 참여)
- ⑥ 어린이 사회 - 어린이의 사회적, 도덕적 성장 과정에서 동료 집단의 영향력의 극대화
- ⑦ 무엇보다도 의무적인 일을 통해 어린이를 보다 광범위한 키부츠 환경에 통합시키는 작업
- ⑧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의 집의 운영
- ⑨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
- ⑩ 진보적인 교육 방법 - 주제 학습과 개인별 학습 평가

키부츠의 교육은 키부츠의 지속적인 존립과 향후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키부츠는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써 교육적인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